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영어
구동사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영어교육전공

김 국 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영어
구동사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국 현

김국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심 영문학박사 윤 희 수 (인)

위원 영문학박사 전 춘 배 (인)

위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ABSTRACT	iii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제한점	2
II 이론적 배경	4
2.1 구동사	4
2.1.1 구동사의 정의	4
2.1.2 불변화사	5
2.2 부호화	6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9
3.1 분석자료	9
3.2 연구방법	11
3.2.1 형태중심연구	12
3.2.2 개념중심연구	16
IV 구동사의 분석 결과	18
4.1 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결과	18
4.1.1 원형의미와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	18
4.1.2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21

4.1.3 과대부호화된 구동사: 다양한 의미	25
4.1.4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	28
4.1.5 교과서 및 영역별 비교	31
4.2 7차·7차 개정 교과서의 비교·분석 및 결과	33
4.2.1 7차·7차 개정 교과서별 비교	34
4.2.2 7차·7차 개정 영역별 비교	36
V 결론 및 제언	39
참고문헌	41



A Cognitive Analysis of English Phrasal Verbs Used in Korea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Kuk-Hyun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Korea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from the cognitive point of view in order to find out how English phrasal verbs are presented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then, we will compare the result of the previous study with that of this examination and present the effective method which can help students to study English phrasal verbs more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The author adopted two approaches—the form-based approach and the concept-based approach—suggested by Driven & Verspoor(1998) and analyzed 15 textbooks with 30 phrasal verbs. The result shows that most textbooks are inappropriate for students to learn English phrasal verbs effectively.

Therefore, the author suggests the effective method students can benefit from. First, the abstract meaning of the phrasal verbs should be

presented with the prototype meaning. Also, both the idiomatic meaning and literal meaning should be presented together in order not to make students memorize the phrasal verbs mechanically. Moreover, students should learn various meanings of the phrasal verbs from the various examples to utilize the phrasal verbs in a proper situation. Finally, the phrasal verbs should be presented together with other related phrasal verbs.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영어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구동사(phrasal verb)의 발달이다 (Barber, 1964). 구동사는 ‘come, get, look, turn’과 같이 흔히 사용되는 동사와 ‘down, on, off, up’ 등과 같은 특정한 불변화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단위를 이룬다. 다시 말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러한 구동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구동사에 쓰이는 개별 단어의 의미만 학습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 개별 단어의 조합으로만 구동사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사 ‘come’은 ‘오다’라는 의미이고 불변화사 ‘across’는 ‘가로질러’ 또는 ‘건너서’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구동사 ‘come across’는 ‘우연히 만나다’ 또는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다’라는 뜻의 ‘come’과 ‘가로질러’라는 뜻의 ‘across’를 결합해도 위에서 설명한 구동사의 뜻을 유추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구동사는 은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타난다. 예를 들어, look back은 ‘뒤돌아보다’라는 원형의 의미를 가진다. 공간상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은유적으로 확장이 되어 시간상에서 현재를 기점으로 뒤를 돌아본다는 ‘(과거)회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동사의 특징을 알지 못하면 독해를 할 때나 대화를 나눌 때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학습자들은 구동사를 학습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단순히 구동사의 의미를 숙어(idiom)라고 생각하여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작문을 할 때나 의사소통을 할 때 구동사 사용을 기피하거나 의미가 비슷한 하나의 동사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 첫째,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교육부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러한 구동사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둘째,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기존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의사소통중심으로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영어권 국가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동사를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1.2. 본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교육부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5종의 교과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김은일·박매란(2002)의 지적처럼 교과서에 문자적 의미나 다양한 의미 등 여러 가지 의미의 구동사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구동사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구동사가 함께 제시되어 있고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들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

습자에게 구동사의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지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에 따라 복잡하고 난해한 구동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하게 될 구동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 다음 4장에서는 교육부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15종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후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게 될 구동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동사의 정의와 구동사의 구성성분인 불변화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구동사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부호화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2.1. 구동사(phrasal verbs)

2.1.1. 구동사의 정의

구동사를 정의함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구동사를 동사(verb)와 불변화사(particle)가 결합하여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음은 구동사의 정의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견해 중 두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Courtney(1983)는 구동사를 동사와 부사, 또는 동사와 전치사의 관용적 결합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동사와 부사가 함께 쓰이는 구동사(phrasal verb)구조와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하여 쓰이는 전치사구 동사(prepositional verb)구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Greenbaum & Quirk(1990)의 정의로 동사와 불변화사가 결합한 구동사를 다의어 동사(multi-word verb)의 하위범주로 분류하고 전치사구

동사와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은 Greenbaum & Quirk(1990)의 정의에 따라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된 구조를 제외한 동사와 불변화사가 결합한 구조만을 구동사로 보겠다.

2.1.2. 불변화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구동사는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때 불변화사는 부사를 일컫는다(Leech, 1975). 그리고 이러한 부사의 상당수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된 전치-부사이다. 이와 같은 전치-부사에 대해 이기동(1992)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다음 (1)에 실린 어느 하나의 불변화사와 결합된 형태를 가리킨다. (1)에 실려 있는 불변화사는 모두 장소이동과 그 결과의 뜻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그래서 움직임을 뜻하는 동사 pull, push, get, move, run 등은 불변화사와 같이 쓰여서 구동사를 이룰 수 있으나, 움직임을 포함되지 않는 동사들—remain, love, hate, hear, see—등은 구동사에 쓰이지 않는다. 만약 hear나 see가 다음에 실린 불변화사와 쓰이게 되면 이들 동사의 의미는 상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 a. about, across, along, around, back, by, down, forth, in, off, on,
out, over, through, under, up
b. aside, away, back, forth

위의 불변화사 가운데는 (1a)와 같이 전치사와 부사로도 쓰이는 것이 있고, (13b)와 같이 부사로만 쓰이는 것이 있다. 구동사에 쓰이는 전치-부사는 원래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쓰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예로서, 다음 (2a)에서는 off의 목적어 the table이 명시되었으나, (2b)에는 전치사 off의 목적어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맥이나 세상일의 지식으로부터 생략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목적어가 없이 쓰이면 off는 부사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2) a. He has knocked the glass off the table and broke it.

b. I had put the glass safely on the table but the cat jumped up and knocked it off.

(2a)에서는 off가 전치사로 쓰여서, 그 목적어 the table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b)에서는 off의 목적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으로 봐서 목적어는 the table임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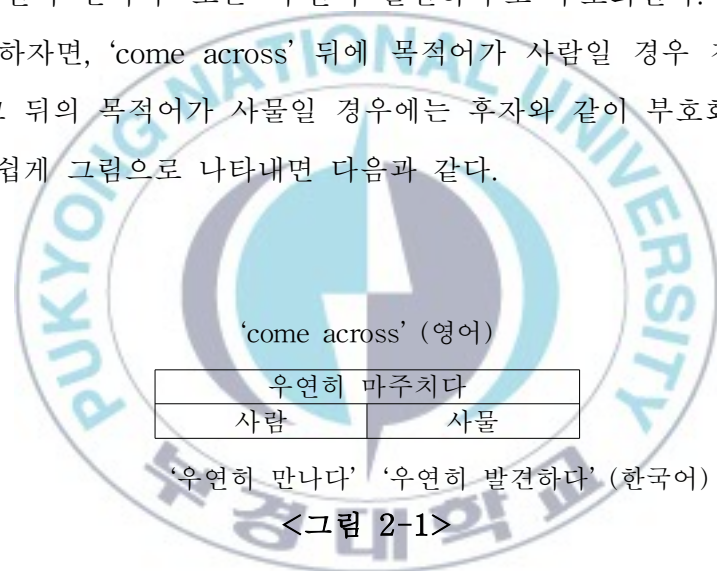
2.2. 부호화

이 절에서는 하나의 영어 구동사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김은일(1998)의 부호화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김은일(1998)에 따르면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를 학습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점 중의 하나는 영어표현과 우리말표현이 정확하게 일대일로 대응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어에 있는 표현이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어에는 있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존재하지만 영어에서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표현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즉, 의미영역이 언어형태로 부호화되는 방식은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를 들어, 영어 구동사 ‘come across’는 뒤에 오는 목적어에 따라 한국어에서 ‘우연히 만나다’ 또는 ‘우연히 발견하다’로 부호화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come across’ 뒤에 목적어가 사람일 경우 전자와 같이 부호화되고 뒤의 목적어가 사물일 경우에는 후자와 같이 부호화된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유생성(animacy)¹⁾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는 다른 구조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한국어는 유생성을 구분해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부호화하는데 반해 영어는 유생성에 상관없이 하나의 형태로 부호화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어구조는 생물이나 아니면 무생물이나에 따라 다른 표현이 사용되는데 반해, 영어구조는 생물과 무생물에 상관없이 한 가

1) 유생성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게 부호화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김은일(2001)을 참조.

지 표현이 사용된다. 그리하여 영어와 한국어는 같은 의미영역을 다르게 부호화한다.

이제껏 구동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동사의 정의와 구동사의 구성 성분인 불변화사, 그리고 부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분석 자료와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3.1. 분석 자료

이 절에서는 개정된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보다 학습자들이 구동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에 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박상규(2008)가 조사한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동일한 교육부의 제 7차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 5종을 선정하였다.²⁾ 출판사는 금성, 두산, 시사, 중앙, 천재이다. 출판사별 고등학교 1, 2, 3학년 교재 3권씩 총 15권의 교재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출판사별 저자 및 서명은 다음과 같다.

<금성>

권오량, 신상근, 이후고, 조자룡, 신인화, 오주혜, Edward Roland Gray.
2010. High School English for Everyone, I, II.

<두산>

김성곤, 윤정미, 송미정, 박용예, 강은경, 문도식, 윤미정, 정석환, Johanna L. Haas. 2009. High School English for Everyone.

김성곤, 이병민, 박기화, 김영숙, 박용예, 강은경, 이희경, 윤미정, 이주연,

2)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가 분석한 10종의 교과서 중 5종만을 분석한 이유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대한, 법문사, 케이스, 현대영어사는 개정된 교과서를 출판하지 않았고 시사는 High School English for Everyone (고등1)을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용호, Christian H. Kim. 2010. English I, II.

<시사>

신정현, 유명숙, 장윤옥, 조금희. 2009. High School English for Everyone.

신정현, 유명숙, 장윤옥, 조금희, 박지현, 유계리. 2010. English I, II.

<중앙>

정길정, 민찬규, 정현성, 김승태, 윤광진, 정미라, 김용석, Walter. A.

Foreman, 이석연. 2009. High School for Everyone.

민찬규, 정현성, 윤광진, 정미라, 정명훈, 광노진, 조정진, Water A.

Foreman, 이석연. 2010. English I, II.

<천재>

김덕기, 안병규, 오준일, 신인숙, 김향신, 나복희, Anna Dahland Kim. 2009.

High School English for Everyone.

김덕기, 안병규, 오준일, 신인숙, 나복희, 조은아, 권혜경, Anna Daland

Kim. 2010. English I, II.

본 연구에서 조사할 구동사의 수는 총 30개로 알파벳 순서로 된 목록은 아래와 같다.³⁾

break out, carry out, clean off, clean out, clean up, come across, get down, get over, get up, let down, look after, look back, look down, look up, make up, pick up, put off, put out, see off, see out, sit down, sit

3) 이 30개의 구동사 목록은 김은일·박매란(2002)이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up, step down, stand out, stand up, take off, turn down, turn off, turn on, turn up

이 구동사들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위 교과서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저장한 후 검색하였다.

3.2. 연구 방법

Driven & Verspoor(1998)에 의하면, 어휘 의미를 분석하는 틀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형태(form)를 중심으로 그 형태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concept)을 중심으로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을 연구하는 것이다.⁴⁾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첫 번째 접근법은 한 단어를 중심으로 그 단어가 갖는 다양한 의미들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므로 자연적으로 다의어(polysemy)와 동음어(homophone)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반면, 두 번째 접근법은 한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과 연관된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문제를 다루므로 유의어(synonym), 반의어(antonym), 어휘장(lexical field)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접근법에 따라 형태 및 개념을 중심으로 구동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3.2.1. 형태중심의 연구

4)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어휘학(lexicology)에서는 각각 의미학(semasiology)과 어휘체계학(onomasiology)이라고 부른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은유적 확장과 관용성, 그리고 부호화에 대해 논의한다.

3.2.1.1. 은유적 의미확장

의미확장은 원형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facet)에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임지룡(1997)은 의미확장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⁵⁾

- (3) a. 구체성 $\Rightarrow$ 추상성
- b. 공간 $\Rightarrow$ 시간 $\Rightarrow$ 추상
- c. 일반성 $\Rightarrow$ 비유성 $\Rightarrow$ 관용성

이 양상들을 예를 통해 살펴보자. (3a)는 ‘밝다’가 ‘빛’(구체성)이 밝은데서 사리(추상성)이 밝은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그리고 (3b)는 ‘짧다’가 연필(공간)이 짧은데서 수업(시간)이 짧은 것으로, 또 경험(추상)이 짧은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3c)는 연필(일반성)이 짧은데서 경험(비유성)이 짧은 것으로, 또 입(관용성)이 짧은 것으로 확대된다.

관용성을 제외한 다른 양상들은 주로 은유(metaphor)라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의미확장이 이루어진다.⁶⁾ 박정운(2001)에 따르면 은유의 본질은 사고에 있으며 은유는 하나의 개념을 다른 하나의 개념을 통해서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장치이다. 즉 은유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영역들이 관여하고 그 중 하나는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5) 임지룡(1997)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이 세 가지 양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양상을 지적하고 있다: 사람 > 짐승 > 생물 > 무생물; 물리적 > 사회적 > 심리적; 내용어 > 기능어.

6) 의미확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지과정은 은유 외에도 환유, 특수화, 일반화가 있다 (Driven & Verspoor, 1998).

이해의 촉매 역할을 하는 개념영역이다. 전자는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 하고 후자는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은유의 개념을 구체적 예를 통해 알아보자. 구동사 ‘step down’의 원형의미는 ‘단을 내려가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구동사의 확장의미는 ‘(요직 등에서) 물러나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목표영역은 확장의미인 (요직 등에서) 물러나다’이고 근원영역은 원형의미인 ‘단을 내려가다’이다. ‘단을 내려간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높은 지위나 요직에서 물러나다’라는 추상적인 의미의 촉매역할을 하여 그 의미 이해과정을 돕는다. 이러한 과정을 은유적 확장이라고 한다.⁷⁾

본 연구에서는 은유에 의해 관련된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의 관계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동사의 원형의미와 함께 확장의미를 제시함으로써 두 의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은유와 관련하여 조사할 대상에 포함된 구동사는 다음과 같다.

(4) 구동사	원형의미(구체, 공간)	확장의미(시간, 추상)
look back	뒤돌아보다	(시간) 회상하다
look down	내려다보다	(마음) 무시하다
look up	쳐다보다	(마음) 존경하다
get over	넘어가다	(질병, 위기) 극복하다
step down	단을 내려가다	(지위) 하야하다
let down	내려가게 두다	(마음) 실망시키다

7) 김은일·박매란(2002)에 의하면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원형의미는 확장의미에 비해 원어민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고, 더 이른 시기에 습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통시적으로 볼 때에도 공간개념에서 시간개념으로, 시간개념에서 추상개념으로 전이 될 수 있으나 그 역으로는 전이되지 않는다(Givón, 1979).

break out 깨고 나오다

(전쟁, 폭력, 질병) 발생하다

3.2.1.2. 관용성

여기에서는 은유적 확장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관용성에 대해 알아본다. 위의 (3c)에서 보듯이 관용적 의미는 일반적 의미로부터 확장된다. 일반적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문자적 의미가 된다. 그러나 한국인 학습자들은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를 숙어(idiom)라고 여기고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문자적 의미가 사용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자적 의미를 한국인 학습자들은 관용적 의미보다 오히려 더 파악하기 어려운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서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와 함께 문자적 의미도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할 구동사는 다음과 같다.

(5) 구동사	문자적 의미	관용적 의미
look after	뒤따라가며 보다	돌보다
put off	떼어 놓다	연기하다
stand out	밖에 서 있다	돋보이다; 뛰어나다
turn up	돌려서 높이다	나타나다
put out	내놓다	끄다
look up	쳐다보다	찾다
turn down	돌려서 낮추다	거절하다
carry out	운반해 나가다	수행하다

지금까지 관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부호화에 대해 알아본다.

3.1.2.3. 과대부호화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어와 영어는 같은 의미영역을 다르게 부호화한다. 예를 들어 영어 구동사 ‘turn on’은 한국어로는 ‘(TV, 컴퓨터 등을)켜다’, ‘물을 틀다’, ‘시동을 걸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를 과대부호화라 부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국어에서의 하나의 표현을 영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찾아 일대일 대응을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일대일 대응을 시켰던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된 문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위의 예에서 ‘turn on’이 앞 절에서 논의한 원형의미에서 확장의미로 또는 문자적 의미에서 관용적 의미로 확장되는 것과 다른 점은 한국어로 표현된 어느 의미도 원형의미 혹은 문자적 의미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가 골고루 제시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조사할 구동사는 다음과 같다.

- | | |
|--------------|---|
| (6) take off | (옷)을 벗다; (비행기) 이륙하다; (시간)쉬다 |
| make up | (얼굴) 화장하다; (사람) 화해하다; (수업) 보충하다;
(이야기) 꾸미다; (집단) 구성하다; (마음) 결심하다 |
| turn off | (전기, 시동) 끄다; (물) 잠그다 |
| turn on | (전기) 켜다; (수도) 틀다; (시동) 걸다 |

come across (사람) 우연히 만나다; (물건) 우연히 발견하다

pick up (물건) 집어들다; (사람) 차로 태워주다; (언어) 익히다

3.2.2 개념중심의 연구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으로 의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찾을 수 있다. high와 low와 같이 단어들끼리 의미가 반대되거나 wise와 clever처럼 의미가 유사하거나 또는 brother, sister, mother, father와 같이 같은 개념영역에 속하는 단어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구동사도 위의 예와 같이 의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단어를 학습할 때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함께 학습하면 단순히 단어를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처럼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도 함께 학습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구동사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와 관련하여 조사할 구동사는 stand up과 sit down과 더불어 sit up이 제시되고 있는지, get up과 더불어 get down이 제시되는지, turn on과 turn off과 함께 turn up과 turn down도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see off와 더불어 see out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7) stand up; sit down; sit up

get up; get down

turn on; turn off; turn up; turn down

see off; see out

본 연구에서는 위의 2가지 접근법, 다시 말해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연

구방법과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방법으로 김은일·박매란(2002)이 사용한 4가지 분류—원형의미 : 확장 의미, 문자적 의미 : 관용적 의미, 다양한 의미, 의미적으로 연관된 의미—로 구동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4가지 방법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교육부의 제 7차 개정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구동사를 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비교·분석한 후 그 결과를 논의하겠다.



IV. 구동사의 분석 결과

4.1에서는 7차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4.2에서는 4.1에서 분석한 결과를 박상규(2008)가 분석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토의한다.

4.1. 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결과 및 토의

이 절에서는 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분석 결과를 3장에서 제시한 연구방법에 따라 4.1.1에서 원형의미와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를, 4.1.2에서는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4.1.3에서는 과대부호화된 다양한 의미를, 4.1.4에서는 의미적으로 연관된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1.5에서는 교과서별 영역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4.1.1. 원형의미와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

확장의미가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는지를 각 교과서별로 조사하여 <표 4-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아래 표에서 ‘●’는 원형의미를, ‘▶’는 확장의미를 나타낸다. 구동사가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모두 제시되어 있으면 ‘●▶’로 표시하였고, 두 의미 중 한 가지 의미만 제시되어 있으면 각 해당되는 기호로 표시하였다.

<표 4-1> 교과서별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의 분포

	금성(10)	두산(16)	시사(12)	중앙(10)	천재(11)
look back	▶	▶	●▶		
look down		▶		▶	
look up		●	●		●
get over	▶			▶	
step down					
let down					
break out			▶	▶	

교과서에서 추출한 구동사 12개 중 동일한 구동사가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모두 제시된 경우는 단 1개(8.3%)의 구동사, 즉 시사의 look back 뿐이다. 아래 예문은 시사에서 발췌한 실제 예문으로 (8a)가 ‘뒤를 돌아보다’라는 원형의미이고, (8b)가 ‘(과거)회상하다’라는 확장의미이다.

- (8) a. He should take the cubs from the mother bear and run up the mountain with them without looking back even once. (시사 고등2)
- b. Looking back, that mistake should have rung alarm bells in Conant's mind. (시사 고등2)

시사에서 발견된 총 12개의 구동사 중 11개(91.7%)가 한 가지 의미로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모두 제시되어 있는 시사조차도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 중 단 1개만이 두 의미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look up은 ‘쳐다보다’라는 원형의미만 사용되어 있고 break out은 ‘(전쟁, 폭력, 질병) 발생하다’라는 확장의미만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두산에서는 하나의 구동사가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모두 제시된

경우는 없지만 look back과 look down은 확장의미로 look up은 원형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래 예문은 두산에서 발췌한 실제 예문으로 (9a)는 ‘(마음) 무시하다’라는 look down의 확장의미이고 (9b)는 ‘쳐다보다’라는 look up의 원형의미이다.

(9) a. Your Majesty, I'm a humble Harijan woman, and people look down on me no matter what I do. (두산 고등1)

b. When the whole situation was over, she looked up to thank the two men who had saved her life, but they had already gone. (두산 고등1)

두산에서 비록 한 구동사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가 모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교과서에 두 가지 의미 모두 제시되어 있어서 시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들 보다는 학습자들이 구동사의 확장의미가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금성, 중앙, 천재는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중 하나의 의미만 사용되고 있다. 금성에서는 look back과 get over가 확장의미로만 사용되고 있고 중앙에서는 look down, get over, break out이 확장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천재에서는 look up의 원형의미 하나만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예문은 금성, 중앙에서 발췌한 실제 예문으로 (10a)는 get over가 ‘(질병, 위기) 극복하다’라는 확장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10b)는 ‘(전쟁, 폭력, 질병) 발생하다’라는 break out의 확장의미이다.

(10) a. She was able to get over the problems of racism and become

a world famous singer. (금성 고등1)

b. Years later, they served in the army together. While they were in the army, a war broke out. (중앙 고등1)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확장 의미가 원형 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가장 잘 제시되어 있는 교과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시사, 두산, 중앙, 금성, 천재이다. 다음은 관용적 의미와 함께 문자적 의미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지를 알아본다.

4.1.2.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는 아래 <표 4-2>와 같이 나왔다. 아래 표에서 ‘●’는 문자적 의미를, ‘▶’는 관용적 의미를 나타낸다. 구동사가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두 가지 다 제시되어 있으면 ‘●▶’로 표시하였고, 두 의미 중에서 하나의 의미만 제시되어 있으면 각 해당되는 기호로 표시하였다.

<표 4-2> 교과서별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의 분포

	금성(10)	두산(16)	시사(12)	중앙(10)	천재(11)
look after		▶	▶	▶	
put off	▶				
stand out			▶		
turn up		▶	◎		▶
put out		▶			◎
look up	▶	◎	◎▶		◎
turn down			◎▶		▶
carry out		▶		▶	

교과서에서 추출한 구동사의 수는 모두 18개이다. 이들 중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제시된 경우는 시사에서만 look up과 turn down 단 2개(11.1%) 뿐이다. 아래 예문에서 (a)는 문자적 의미이고, (b)는 관용적 의미이다.

- (11) a. I looked up to see what he was looking at. (시사 고등1)
 b. The instructor gave us the official Samulnori website address and told us to look it up. (시사 고등1)
- (12) a. Turn down the volume on your MP3 player and do not listen to it all day long. (시사 고등1)
 b. He or she might turn it down several times. (시사 고등1)

앞 절에서 살펴본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에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동사 18개 중에서 88.9%에 해당하는 16개의 구동사가 문자적 의미 혹은 관용적 의미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이 되었고, 문자적

의미가 나타난 수(6)가 관용적 의미의 수(14)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게 제시되었다. 또한 look after, put off, stand out 그리고 carry out은 어느 교과서에도 문자적 의미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문자적 의미와 함께 관용적 의미가 제시된 교과서는 시사뿐이었고 조사하고자 했던 총 8개의 구동사 중 look up과 turn down 이 단 2개의 구동사만이 제시되었다.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시사가 사용된 구동사의 수도 많고 turn up, look up, 그리고 turn down이 문자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발견된 총 6개의 문자적 의미 중 절반(50%)에 해당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와 문자적 의미가 함께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천재는 하나의 구동사가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가 함께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put out, look up이 문자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turn up과 turn down이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어 한 교과서 내에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두산도 천재와 마찬가지로 look up이 문자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look after, turn up, put out, 그리고 carry out이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예문은 천재와 두산에서 발췌한 실제 예문으로 (13a)는 put out이 ‘내놓다’라는 문자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13b)는 put out이 ‘(불을)끄다’라는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예문이다.

- (13) a. Talk to your principal and ask her to put out a big stone at your school, too. (천재 고등1)
- b. Then two men came out of nowhere and helped her put out the fire coming from the engine. (두산 고등1)

또한 금성과 중앙은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고 문자적 의미로 사용된 구동사도 없었고 단지 관용적 의미로만 구동사가 사용되었다. 금성에서는 put off와 look up이 중앙에서는 look after와 carry out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예문은 금성과 중앙에서 발췌한 예문으로 (14a)는 put off가 ‘연기하다’라는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예문이고 (14b)는 carry out이 ‘수행하다’라는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예문이다.

- (14) a. Others put off their happiness till some future date. (금성 고등 3)
- b. A Japanese researcher carried out a study to discover the influence of cultural background on facial expressions. (중앙 고등2)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습자들이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를 제시할 때에 아래의 예문과 같이 영화대본이나 영자신문 등에서 발췌된 구동사의 문자적 의미도 함께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굳어진 표현이라 여기고 암기하려고 하는 현상을 막고 문자적 의미로부터 유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해져서 구동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15a)은 look after의 문자적의미를, (15b), (15c)는 각각 stand out 그리고 carry out이 문자적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⁸⁾

8) <http://www.drama21c.net>에 올려진 대본과 <http://www.news.naver.com>에 게재된 영자신문을 참조하였음.

- (15) a. They look after him in puzzled astonishment.
- b. Officials stand out on the 11th green after play was suspended due to strong wind during the second round of the British Open Golf Championship on the Old Course at St. Andrews, Scotland, Friday, July 16, 2010.
- c. U.S. soldiers carry an unidentified casualty out of a U.S. medic helicopter at a hospital in Kabul, Afghanistan on 10 August 2010.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가 함께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구동사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잘 구성된 구동사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시사, 천재, 두산, 금성, 중앙 순이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도 함께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구동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교과서에 골고루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4.1.3. 과대부호화된 구동사: 다양한 의미

한국어로는 다양한 의미로 과대부호화가 되는 영어 구동사가 교과서에서 한국어로 표현되는 만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교과서별로 조사하여 아래의 <표 4-3>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래 표에서 각 번호는 아래 (16)의 각 번호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표 4-3> 교과서별 다양한 의미의 분포

	금성(10)	두산(16)	시사(12)	중앙(10)	천재(11)
take off		①		②	
make up	⑤	⑤	③⑤⑥	⑤	⑤
turn off				①	
turn on		①			
come across		②	①②		②
pick up	①	①③	①	②	①②

- (16) take off: ① (옷) 벗다; ② (비행기) 이륙하다; ③ (시간) 쉬다.
 make up: ① (얼굴) 화장하다; ② (사람) 화해하다; ③ (수업) 보충하다; ④ (이야기) 꾸미다; ⑤ (집단) 구성하다; ⑥ (마음) 결심하다
 turn off: ① (전기, 시동) 끄다; ② (물) 잠그다
 turn on: ① (전기) 켜다; ② (수도) 틀다; ③ (시동) 걸다
 come across: ① (사람) 우연히 만나다; ② (물건) 우연히 발견하다
 pick up: ① (물건) 집어들다; ② (사람) 차로 태워주다; ③ (언어) 익히다

교과서에서 추출한 17개의 구동사 중에서 13개(76.5%)가 하나의 의미로만 제시되었고, 4개(23.5%)만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조사한 전체 교과서에서 take off의 ③번 의미인 ‘(시간) 쉬다’라는 의미와 make up의 ① ‘(얼굴) 화장하다’, ② ‘(사람) 화해하다’, ④ ‘(이야기) 꾸미다’라는 의미로 구동사가 사용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마찬가지로 turn off의 ②번 의미인 ‘(물) 잠그다’라는 의미와 turn on의 ② ‘(수도) 틀다’, ③

‘(시동) 걸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구동사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교과서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사에서 make up이 위의 (16)에서 보여주는 make up의 여섯 가지 의미 중에서 ③ ‘(수업) 보충하다’, ⑤ ‘(집단) 구성하다’, 그리고 ⑥ ‘(마음) 결심하다’ 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come across는 ① ‘(사람) 우연히 만나다’, ② ‘(물건)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 모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예문 (17)은 시사에서 발견된 make up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한 실제 예문이고, 예문 (18)은 come across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한 실제 예문이다.

- (17) a. They make up for this lack by devouring insects or small animals. (시사 고등3)
- b. Mr. Raven explained that the entire 120 kilometer long beach is made up of trillions of pure white, tiny cockleshells. (시사 고등3)
- c. I was so impressed that I made up my mind then and there to learn how to play the *janggu* - the drum that looks like an hourglass. (시사 고등1)
- (18) a. Throughout my life, I have come across people who supported my father's belief. (시사 고등3)
- b. When Antony comes across his corpse, he acknowledges that Brutus killed Caesar not for selfish reasons. (시사 고등3)

그 다음으로 두산과 천재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된 구동사의 수가 각각 하나씩인데 모두 pick up이 사용되었다. 두산에서는 (16)에서 제시된 pick up의 세 가지 의미 중 ① ‘(물건) 집어들다’라는 의미와 ③ ‘(언어)

익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고, 천재에서는 ① '(물건) 집어들다'라는 의미와 ② '(사람) 차로 태워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래의 예문은 두산과 천재에서 실제 발췌한 예문으로 (19a)는 pick up의 ②번 의미이고 (19b)는 pick up의 ③번 의미이다.

(19) a. "I'll pick you up at nine." (천재 고등2)

b. They frequently use the Internet, so they naturally pick up slang. (두산 고등3)

금성과 중앙에서는 구동사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금성은 make up과 pick up이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었고 중앙에서는 take off, make up, turn off, 그리고 pick up이 각각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조사하고자 했던 총 6개의 구동사 중에 시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교과서에서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를 하나 이상 제시한 교과서가 없었고 (19)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구동사의 의미 중 많은 의미가 교과서에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양한 의미가 제시되어 구동사를 학습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교과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시사, 두산, 천재, 중앙, 금성이다.

다음 4.1.4에서는 단어를 학습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이 함께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구동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 지를 살펴본다.

4.1.4.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이 함께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아래 <표 4-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래 표에서 각 번호는 아래 (20)의 각 번호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일반적인 흰 원은 한국학습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동사이고, 검은 원은 한국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구동사이다.

<표 4-4> 교과서별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의 분포

	금성(10)	두산(16)	시사(12)	중앙(10)	천재(11)
turn		①	③④		
get	①	①②	①	②	①②
sit	①②	①②	①		②
see					

(20) ① turn on; ② turn off; ③ turn up; ④ turn down⁹⁾

① get up; ② get down

① stand up; ② sit down; ③ sit up

① see off; ② see out

위의 <표 4-4>를 살펴보면 전체 11개의 구동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구동사 4개(36.4%)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turn off와 sit up과 see off, 그리고 see out의 경우는 전체 교과서 중

9) 이 절에서는 turn up과 turn down의 의미를 (소리나 빛을) ‘높이다’ 혹은 ‘낮추다’의 의미로 국한하여 논의한다.

어느 교과서에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구동사가 교과서별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금성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출판사에서 각각 하나씩 제시되어 있다. 시사에서는 turn down과 turn up이, 두산과 중앙, 그리고 천재에서는 get down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이 구동사들 중에서 학습자들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구동사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구동사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get up과 get down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두산과 천재뿐이다. 아래의 (21)은 두산에 제시되어 있는 get up과 get down에 대한 실제 예문이고, (22)는 천재에 제시되어 있는 get up과 get down의 실제 예문이다.

(21) a. The first one gets up and says, "My opponent is a liar." (두산 고등3)

b. I told him not to, but the North Polar Bear climbed up to the thin top to get it down-and he did. (두산 고등3)

(22) a. Dozens of contestants, all wearing black hats and baggy suits, got up and did their best to imitate the famous Chaplin walk. (천재 고등2)

b. Grave Prices Got You Down? (천재 고등1)

또한 금성과 두산에서는 stand up과 sit down은 제시되어 있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sit up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시사에서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turn up과 turn down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turn

on과 turn off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구동사를 포함한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제시되어 있는 구동사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두산, 시사, 천재, 중앙, 금성이다.

다음 4.1.5에서는 위의 4.1.1에서부터 4.1.4까지의 4가지 영역—원형의미와 확장의미,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다양한 의미, 그리고 의미적으로 연관된 의미—을 교과서별 영역별로 비교한 내용을 살펴본다.

4.1.5. 교과서 및 영역별 비교

아래의 <표 4-5>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교과서별 그리고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분모로 표시된 것은 발견된 구동사의 수를 나타내고 분자로 표시된 것은 영역별로 나타내는 바가 다르다. 먼저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에서는 원형의미와 더불어 은유적으로 확장된 확장의미가 함께 사용된 수를 나타내고,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에서는 숙어(idiom)로 종종 제시되고 있는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가 함께 제시된 구동사의 수를 나타낸다. 또한 다양한 의미에서의 분자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된 구동사의 수를 나타내고, 연관된 구동사에서는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가 제시된 수를 나타낸다.

<표 4-5> 교과서별 영역별 구동사의 사용실태 비교

	금성	두산	시사	중앙	천재	합계(%)
확장의미	0/2	0/3	1/3	0/3	0/1	1/12(8.3%)
관용적 의미	0/2	0/5	2/5	0/2	0/4	2/18(11.1%)
다양한 의미	0/2	1/5	2/3	0/4	1/3	4/17(23.5%)
연관된 구동사	0/2	1/3	1/3	1/1	1/2	4/11(36.4%)
전체 (%)	0/8 (0%)	2/16 (12.5%)	6/14 (42.9%)	1/10 (10%)	2/10 (20%)	11/58

<표 4-5>에서 나타난 백분율의 수치가 높을수록 구동사의 효과적인 학습에 적합한 교과서로 생각한다. 먼저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백분위가 50%이상이 되는 교과서는 한 교과서도 없었다. 시사가 전체 14개의 구동사 중에서 관용적 의미와 함께 문자적 의미가 제시되어 있는 수와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가 2개 이상 제시되어 있는 수가 각각 2개씩, 그리고 원형의미와 함께 확장의미가 제시되어 있는 수와 조사하고자 했던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가 제시되어 있는 수가 각각 하나씩 총 6개(42.9%)의 구동사가 제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구동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천재가 전체 10개의 구동사 중 다양한 의미가 제시되어 있는 수가 1개, 조사하고자 했던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가 제시되어 있는 수가 1개 총 2개(20%)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두산이 총 16개의 구동사 중에서 다양한 의미가 1개, 연관된 구동사가 1개 총 2개(12.5%)가 제시되어 있다. 중앙은 총 10개의 구동사 중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 1개(10%)만이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금성은 총 8개의 구동사 중에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학습자가 구동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에 상대

적으로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시사, 천재, 두산, 중앙, 그리고 금성이다.

다음으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조사하고자 했던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가 총 11개의 구동사 중 4개(36.4%)로 가장 백분위가 높고, 확장 의미는 총 12개의 구동사 중에서 단 1개(8.3%)만이 원형 의미와 더불어 확장 의미가 함께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관용적 의미가 문자적 의미가 함께 나타난 경우는 총 18개 중 2개(11.1%)이고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가 2개 이상 제시된 것은 전체 17개의 구동사 중 4개(23.5%)이다. 이를 영역별로 백분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연관된 구동사, 다양한 의미, 관용적 의미, 그리고 확장 의미이다.

정리하자면, 교과서 중에서는 시사가 4가지 조사하고자 했던 영역의 구동사가 모두 제시되어 있어 구동사를 학습하기에 상대적으로 가장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역별로는 교과서가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를 학습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합하고, 확장 의미가 원형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겠다.

4.2 7차 및 7차 개정 교과서의 비교·분석 및 결과 토의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선행 연구에서 조사한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의하고자 한다. 4.2.1에서는 교과서별로 두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비교하고 4.2.2에서는 영역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4.2.1. 7차 · 7차 개정 교과서별 비교

여기에서는 박상규(2008)가 조사한 7차 교육과정 15종의 교과서와 본 연구에서 조사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같은 출판사 교과서 15종을 비교 ·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의하고자 한다. 먼저 두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제시된 구동사를 비교하는 아래의 <표 4-6>과 <표 4-7>을 살펴보자.

<표 4-6> 7차 교과서별 영역별 사용된 구동사 실태

	금성	두산	시사	중앙	천재
확장의미	3/4	1/4	2/2	2/3	2/3
관용적 의미	1/3	1/2	0/1	1/3	0/2
다양한 의미	1/3	2/5	2/4	0/3	2/3
연관된 의미	1/2	0/2	1/4	0/1	0/3
전체 (%)	6/12 (50%)	4/13 (30.8%)	5/11 (45.5%)	3/10 (30%)	4/11 (36.4%)

<표 4-7> 7차 개정 교과서별 영역별 사용된 구동사 실태

	금성	두산	시사	중앙	천재
확장의미	0/2	0/3	1/3	0/3	0/1
관용적 의미	0/2	0/5	2/5	0/2	0/4
다양한 의미	0/2	1/5	2/3	0/4	1/3
연관된 의미	0/2	1/3	1/3	1/1	1/2
전체 (%)	0/8 (0%)	2/16 (12.5%)	6/14 (42.9%)	1/10 (10%)	2/10 (20%)

첫째, 교과서별로 7차와 7차 개정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7차에 비해 7차 개정 교과서의 백분위 수치가 모두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가 발견된 수도 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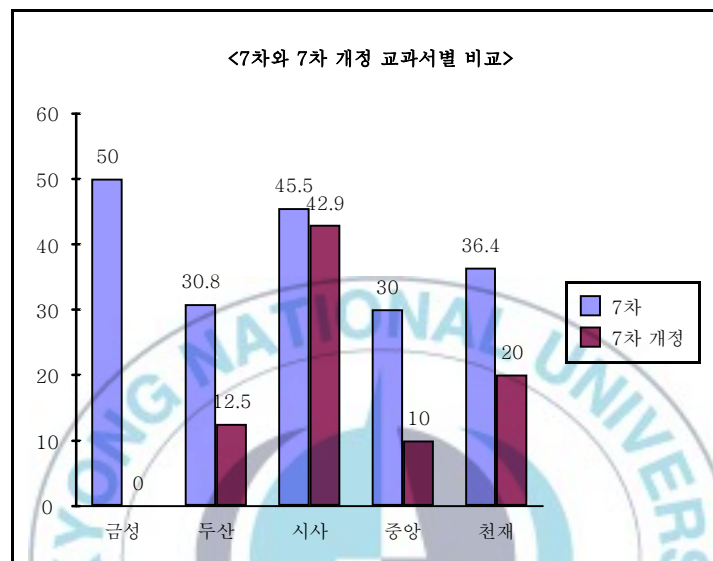
졌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구동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에 의사소통능력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개정된 교과서가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차와 7차 개정 교과서를 비교해보자. 먼저 시사가 전체 구동사가 발견된 수도 7차의 11개에서 7차 개정의 14개로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의 수 또한 5개에서 6개로 하나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시사 교과서는 7차보다 조금 더 구동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금성에서는 7차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가 전체 구동사 12개 중 6개(50%)가 제시되어 있었지만 7차 개정에서는 총 8개의 구동사 중 조사하고자 하는 구동사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금성교과서는 개정이 되면서 전체 구동사의 수도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의 수도 많이 적어졌다. 그러므로 금성은 개정이 되면서 구동사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5종의 출판사 중 가장 열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두산은 전체 구동사의 수는 13개에서 16개로 많아졌지만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의 수가 4개에서 2개로 적어져서 전체 백분위 수치도 7차의 30.8%에서 7차 개정에서의 12.5%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에서는 전체 발견된 구동사의 수는 7차와 7차 개정에서 모두 10개로 같지만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가 제시된 수가 3개에서 1개로 적어져서 백분위도 30%에서 10%로 많이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천재에서는 전체 구동사의 수가 7차에서는 11개, 7차 개정에서는 10개로 비슷하지만 다른 교과서와 유사하게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의 수가 4개에서 2개로 적어져 백분위 수치도 36.4%에서 20%로 낮아졌다.

다음의 <그림 4-1>은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7차와 7차 개정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를 한 눈에 보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

지금까지 4.2.1에서는 7차와 7차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5종을 교과서별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였다. 다음 4.2.2에서는 두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구동사를 영역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4.2.2. 7차와 7차 개정 영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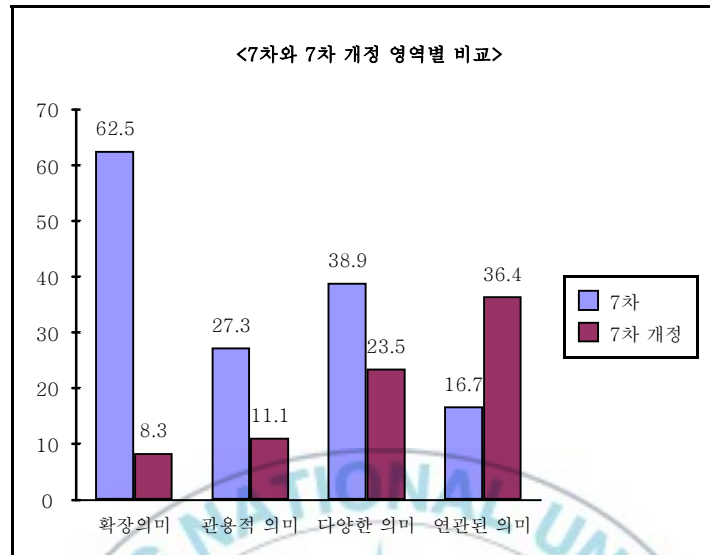
<표 4-10> 7차·7차 개정 영역별 제시된 구동사 비교

	7차	7차 개정
확장의미	10/16(62.5%)	1/12(8.3%)
관용적 의미	3/11(27.3%)	2/18(11.1%)
다양한 의미	7/18(38.9%)	4/17(23.5%)
연관된 의미	2/12(16.7%)	4/11(36.4%)
전체(%)	22/57	11/58

마지막으로 영역별로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생겨난 변화를 살펴보자. 위의 <표 4-10>을 살펴보면 확장 의미는 전체 16개의 구동사 중 원형 의미와 더불어 은유적으로 확장된 구동사가 나타난 수가 10개(62.5%)였던 7차보다 7차 개정에서 12개 중 1개(8.3%)로 크게 줄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가 함께 제시된 구동사는 7차와 7차 개정에서 발견된 전체 구동사의 수는 증가했지만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의 수나 크게 변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7차에서의 백분위 수치가 27.3%에서 8차에서는 11.1%로 많이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적 의미와는 반대로 다양한 의미에서는 7차에서 7차 개정으로 오면서 전체 구동사 수는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의 수가 7개에서 4개로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는 전체 구동사의 수가 12개에서 11개로 약간 적어졌으나 발견된 구동사가 더 많아져서 전체 백분위가 다른 영역과는 대조적으로 16.7%에서 36.4%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와 같은 7차에서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일어난 구동사의 영역별 변화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이 절을 정리를 해보면,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교과서별로는 전체 구동사의 수나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가 발견된 수 모두 적어졌다. 영역별로도 전체 구동사의 수는 거의 변함이 없지만 발견된 구동사의 수가 절반으로 적어졌고 백분위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한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를 제외하고는 확장의미, 관용적 의미 그리고 다양한 의미 모두 대체적으로 적어졌다. 이로 미루어 볼 때, 7차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교과서도 개정되었지만 학습자가 구동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에는 환경이 오히려 조금 더 열악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교육부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 5종을 선정하고 총 15권의 교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4가지 연구주제 즉, 원형의미·확장의미, 문자적 의미·관용적 의미, 과대부호화된 다양한 의미, 그리고 의미적으로 연관된 의미에 따라 인지언어학적으로 구동사를 분석하고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은유적 확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원형의미와 확장의미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총 12개의 구동사 중 단 한 개(8.3%)의 구동사만이 제시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관용적 의미를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문자적 의미가 함께 제시된 경우는 전체 18개의 구동사 중에서 2개뿐(11.1%)이었고 한 교과서(시사)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나머지 4개의 교과서에는 단 하나의 구동사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과대부호화로 인해 한국어로 표현이 되는 만큼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총 17개의 구동사 중 4개(23.5%)가 2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구동사의 의미가 유사하거나 또는 반대가 되는 것과 같이 의미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구동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구동사가 발견된 수는 4개로 전체 11개의 구동사 중 36.4%를 차지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확장의미(62.5%), 관용적 의미(27.3%), 다양한 의미(38.9%), 그리고 연관된 의미

(16.7%)-와 비교해보면, 발견된 구동사의 총 수는 비슷하지만 영역별로 백분위의 수치가 많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7차 개정 고등학교 교과서는 구동사의 효과적인 학습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최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비중이 커졌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동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구동사를 학습시킬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30개의 구동사 외에 더 많은 구동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은일·박매란. (2002).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구동사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언어과학」 9, 34-54.
- 김은일. (1998). 영어구사력 향상을 위한 한·영구조에 나타난 유생성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영어교육연구」 9, 145-164.
- 김은일. (2001). 유생성 부호화의 유형론. 「동북아 문화연구」 1, 37-57.
- 박상규. (2008). 「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구동사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박정운. (2001). 개념적 은유 이론. 「언어와 언어학」 28, 85-107.
- 이기동. (1992). 「영어동사의 문법」 서울: 신아사.
-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 출판사.
- Barber, C. (1964). *Linguistic Change in Present-Day English*. Edinburgh: Oliver & Boyd.
- Courtney, R. (1983).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 London: Longman.
- Driven, R. & Verspoor, M. (1998). *Cognitive Exploration of Language and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 Givó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Greenbaum, S. & Quirk, R.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Leech, G. & Svartvik, J.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